

# 전남도-베트남 동나이성 “문화관광·경제통상 협력”

### 양 지역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호치민 인접 교류·물류 중심지 해외기업 투자 유망지로 각광 김 지사 “다양한 분야서 교류”

전남도가 베트남 동나이성과 문화관광·농업·경제통상 등 교류에 나선다.

전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베트남 동나이성과 우호교류의향서(LOI)를 교환하고, 경제통상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동나이성의 응우옌 홍 링 당서기, 응우옌 티 호앙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교류의향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농업,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교류는 지난해 2월 김영록 지사가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동나이성에 우

호교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으며 이날 동나이성 대표단이 방문하면서 우호교류의향서 교환으로 이어졌다.

베트남 동남부에 위치한 동나이성은 베트남에서도 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 가운데 하나로, 호치민을 비롯한 6개 광역 지방과 인접해 있어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통한다.

특히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망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동나이성 해외투자기업 중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투자(72억 달러)를 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베트남 수출 역시 27억 달러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교류로 전남도는 지난 1997년 5월 바리아붕따우성, 2012년 12월 켄터시, 2022년 8월 빈 프억성에 이어 이번 동나이성까지 베트남과의 외교영토를 4개 지방정부로 확대하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지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문화관광·농업·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 ‘전남도-베트남 동나이성 우호교류의향서(LOI) 체결식’에서 베트남 동나이성 응우옌 홍 링 당서기, 응우옌 티 호앙 성위원회 위원 겸 성 인민 부위원장과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농산물 판로’ 식품기업 연계 사업 박차

### 올해 327농가서 6467톤 공급

전남도가 농업인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농산물 판로를 확대 및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연계사업은 전남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이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거나 납품함으로써 전남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년간 971농가를 대상으로 1875

ha를 계약 재배해 2만3000톤을 생산했으며 331억원의 거래 성과를 냈다.

올해는 생산자단체 15개소, 식품기업 14개소를 선정해 327농가에서 6467톤의 농산물을 기업에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농산물 생산자단체에는 교육·컨설팅,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참여 농가 수에 따라 최대 4000만원, 식품기업에는 제품홍보 및 신제품 개발 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박지혜 기자

## 광주시, 탕후루·케이크 판매업소 현장점검

광주시는 디저트 시장의 위생관리 강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탕후루·케이크류 등 디저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위생점검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배달앱 등에 등록된 디저트 판매업소 40개소를 선별해 29일부터 5월14일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비식용 식품첨가물 사용 △소비기한 경과 및 무표시 원료 보관·사용 △비위생적 조리 환경 등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 입건 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련 업체가 있는 경우 추적 수사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19개 시·군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76개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질검사는 지하수와 정수기 통과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하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라 일반세균 등 46개 항목을, 정수기 통과수는 탁도와 총대장균군을 검사한다.

오는 11월까지 수질검사 전문 인력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먹는 물 위생관리 방법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지자체 및 해당 시설에 수질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 공동으로 원인을 조

사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개선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사회 취약계층의 물 복지 향상과 온정나눔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상수도 보급, 시설 개선, 지하수의 정수처리, 정수기 청결관리 등 지자체와 함께 물 복지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1개소의 지하수와 정수기 통과수 총 231건을 검사한 결과 지하수 10개소에서 세균과 총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즉시 소독하도록 조치했으며, 지속적인 수질관리로 수인성 감염병 등을 예방하고 있다.

박지혜 기자

## 인공지능 기업들, ‘실증도시 광주’로 속속 집결

### AI 유망기업 7곳과 업무협약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의 광주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춘 데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 및 실증도시의 면모를 두루 갖추면서 기업들의 광주 진출에 가속도가 붙었다. 특히 플랫폼·헬스케어·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광주로 대거 몰리면서 인공지능(AI)산업 생태계는 보다 탄탄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29일 광주시는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원포유, 박격포, 태영에스엔티, 원퍼스트, 램팜, 와이와이소프트, 시스포커 등 7개 인공지능 유망 기업들과 183~189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원포유 전동호 대표이사, 박격포 정창용 대표이사, 태영에스엔티 김기영 대표이사, 원퍼스트 하대수 대표이사, 램팜 이용우 기술이사, 와이와이소프트 양홍현 대표이사, 시스포커 공석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인공지능 유치기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 등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추진 및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전문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인공지능(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기업 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

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시설(인프라)과 인재, 실증까지 AI기업의 성장 토대를 갖춘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광주에 정착한 한 AI기업은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서비스로 연간 5억원 가량을 지원받는 효과를 거뒀다는 얘기를 들었다. 올해 인공지능(AI)기업 1000여 개사를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광주에서 함께 AI 성공기업의 꿈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첨단 산단서 광주일자리박람회 개최

### 우수 중견·중소기업 16개사 참여 1대1 현장면접·구직상담 등 지원

광주시가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 지역본부에서 ‘내일(my job)’이 빛나는 광주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박람회는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광주경제진흥원·광주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박람회에는 일신방직(주), 쿠팡풀필먼트 서비스, 삼부철강(주) 등 우수 중견·중소기업 등 16개사가 참여하며, 생산직·현장직·사무원 등 150명 채용을 위한 1:1 현장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시와 정부 일자리지원정책 중 청년·여성·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교육·훈련(K디지털트레이닝,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등) △장려금·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등) △취업지원(새일여성인턴사업, 시니어인턴십) 등 3개 분야 18개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타사업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력서 등 입사지원서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구인정보 제공, 구직상담 등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전환지원센터(1551-4119)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